
2015년 라오스 진출전략 보고서

2015. 2

kotra
비엔티안 무역관

목 차

I.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	3
II. '15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	6
III. 라오스 시장 진출전략	7
1. 중장기 진출전략	
2. 세부 추진전략	
 【별첨】	
가. 관할지 경제동향	12
나. 우리나라 진출현황	14

①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 → 주위 국가의 서브시장 ⇒ AEC 단일 시장

-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태국, 미얀마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
- 태국, 베트남,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라오스 전체 수입의 83%이상 차지

<2011~2013년간 라오스 주요 수입실적>

구 분	2011		2012		2013	
	금액(백만불)	비중(%)	금액(백만불)	비중(%)	금액(백만불)	비중(%)
전체 수입	4,243	100.0	5,807	100.0	6,196	100.0
태 국	2,790	65.8	3,610	62.2	3,758	60.7
베트남	287	6.8	433	7.5	N/A	N/A
중 국	476	11.2	937	16.1	1,723	27.8
3국 소계	3,553	83.8	4,980	85.8	5,481	88.5

주: 2013년 대베트남 수입통계 없음.

자료원: ITC Trade Map

- 라오스 북부는 중국, 남부는 베트남, 메콩강 접안 도시는 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, 수도 비엔티안을 중심으로 중부는 3개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음
- 인근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거래 경험이 부족
 - 대부분의 업체가 영문 교신 및 수출입 업무 관련 능력이 부족
 - 대리점 형식의 거래 관행에 익숙하며 거래선 변경에 상당히 보수적임
- * 자사까지 물품을 배달해주고 재고 발생 시 회수하는 조건부 계약에 익숙하며, FOB보다 CIF를 선호

② 내륙국의 한계 → 高물류 시장 ⇒ 임가공 수출 공장설립형 투자 여건 취약

- 항구가 없어 내륙운송비 추가 부담 발생
 - 물류이동이 대부분 부산항-방콕항-비엔티안으로 이뤄지는 상황에, 부산항-방콕항 까지 해운임보다 방콕-비엔티안 내륙운송비가 더 높음
 - *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해운임(부산-방콕) USD550, 내륙운송비(방콕-비엔티안) USD1,100
 - 원부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시 부담해야 하는 高물류비용으로, 항구가 있는 인근국(베트남, 캄보디아, 미얀마) 대비 취약
 - * 이외에, 작은 내수시장(약 680만명), 낮은 노동력 수준 등이 對라오스 투자부진 요인

③ 작지만, 성장하는, 경쟁이 적은 시장

- 시장은 작지만, 아세안 국가 내에서 7% 이상의 고성장 시현중
 - 제조기반이 없음에도 확실한 성장동력(수력발전, 광물) 보유
 - * (수력발전) 메콩강 낙차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은 라오스의 2위 수출품목
 - * (광물) 라오스 1위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약 40%(’13년)를 차지

<최근 4년간 CLMV 경제성장률 (단위: %)>

국가	2011	2012	2013	2014 ^P
ASEAN 평균	5.2	5.6	5.2	5.5
라오스	8.0	7.9	8.2	7.1
캄보디아	7.1	7.3	7.0	7.2
미얀마	5.5	6.4	6.8	8.5
베트남	5.9	5.2	5.3	5.6

주 : P는 예측치

자료 : IMF

- 대부분의 산업이 과점형태로 경쟁이 적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 과점기업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, 생각보다 큰 선점효과 구현 가능
 - 한국은 인구 15명당 1개 기업이 있으나, 라오스 기업은 85명당 1개 비율
 - * 대부분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, 1차 및 2차 산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경쟁이 더 적음
 - * 한상기업 KOLAO가 대표적인 예로, 라오스 경제성장과 함께 라오스 굴지 그룹사로 성장

④ 전세계 원조기구가 한자리에 →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

- 라오스는 UN이 인구, 경제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지정하는 세계최빈국에 197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선정
 - WB, ADB, WHO 등 36개 이상의 국제·양자 원조기구들이 진출해 있으며, 연간 약 4억 달러 이상 규모의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형성
 - * ITI(무역투자연구원), ‘라오스 위생검역시스템 개선사업’ ADB 프로젝트 수주(’13.2월/215만불)

<라오스 ODA 사업 현황(단위: USD백만)>

총 사업수	FY 2012-2013			FY 2013-2014		
	계획	실행	이행률(%)	계획	실행	이행률(%)
892 건	440	425	96.5	324	417	128.8

주: 라오스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임.

자료 :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

- 한편, 원조자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BOT 형태로 진출유도
 - BOT 진출사례 : SK건설+서부발전,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(410MW) 프로젝트
 - * 총 사업비10.2억달러, 라오 정부와 BOT(’14.2월~’46.2월, 시공 5년, 27년 운영 후 정부반납) 계약

⑤ 우리기업 진출기반 조성이 필요한 미래시장

- 라오스는 아직 시장이 미성숙하여 우리기업 진출이 미미하나, **미래시장 선점**을 위한 **진출기반 조성**이 중요한 시점
 - 라오스의 성장동력인 수력발전, 광물개발 등 미래 우리기업의 먹거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 필요
 - * (전 력) 라오스 전기학교 개최('13.10월) / 한국전력 & 라오스전력공사
 - * (수자원) 라오스 수자원학교 개최('14.7월) / 수자원공사 & 라오스에너지광산부
 - * (광 물) 라오스 광해관리학교 개최('14.10월) / 한국광해관리공단 & 라오스 에너지광산부
 - **적극적인 CSR 활동**으로 한국기업 홍보 및 라오스 내 親韓 분위기 조성
 - * 라오스 자동차 정비학교 개최 예정('15.상반기) / 좋은차닷컴 & 한라직업훈련원
 - * 라오스 무료검안 및 안경보급 사업 개최 예정('15.하반기) / 대학당안경원 & 라오스 보건부
- 라오스 정재계에 한국 브랜드를 알리고, 한국기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**KOTRA 인지도 확대** 필요
 - 라오스 총리, 대통령 방한 연계 행사에 라오스 유력 정재계 인사 총 103명 방한 및 KOTRA 방문
 - * (라오스 총리 방한) '라오스 투자설명회', KOTRA 본사개최('12.7월)
 - * (라오스 대통령 방한) '한-라 비즈니스 포럼', KOTRA 본사개최('13.11월)

<라오스 진출 SWOT 분석>

<Strengths> - 풍부한 천연자원(수력, 광물) - 정치적 안정 -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- 낮은 인건비 - 한류 - ASEAN, WTO 회원국 - 42개국으로부터 GSP 혜택	<Weaknesses> - 항구가 없는 내륙국으로 물류비과다 - 인구 약 680만명의 작은 내수시장 - 철도, 도로 등 인프라 취약 - 원부자재 현지조달 취약 - 고급인력 부족 - 만성화된 부정부패
<Opportunities> - 연 8%대 경제성장 - 해외원조 프로젝트 수주기회 증가 - 2015년부터 ASEAN 역내국 무관세 - 경쟁이 적은 서비스시장 성장세 - 브랜드 로열티 미미 - 향후 인도차이나반도 물류허브 가능	<Threats> - 중국의 라오스 진출확대(대규모 원조) - 태국과의 교역편리성(언어유사, 접근성) - 베트남의 정치적 영향력 다대 - 재정악화로 정부프로젝트 감소

□ 아세안경제공동체(ASEAN Economic Community, AEC) 출범

-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이나 라오스는 회원국 간의 원활한 교역을 위한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규정 정비 등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, 실질적인 참여는 '15년 하반기 또는 '16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인 CEPT(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)는 적용하고 있지만 AEC를 위한 완전 관세철폐는 2018년까지 유예

□ 국가 재정 적자 지속,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증대

- 라오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5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민간 경기 경색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
- 정부의 사업 축소와 기존 사업 대금 결제 지연이 민간의 현금 회전을 저해
- 과도한 공무원 급여인상,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
- * 라오스 정부는 '12~'15년까지 공무원 급여 165%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, 재정적자로 '13년 하반기 급여가 체불되어 '15년 2월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 발생
- 국가재정 정상화를 위한 **세수확보 노력** 경주
- '05년 이후 10년 만에 '15.3월 전국 인구조사 실시
- * 이번 센서스에는 6개월 이상 라오스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세 과세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예상
- 재무 컨설팅을 통한 세무법제 정비와 전산화를 통한 **탈세 및 누세 방지**
- * 프랑스 원조를 통해 라오스 재무부가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, 세수증대와 조세 투명화를 위한 카드식 납세 전산시스템 도입을 제안 받아 고려중이라 함
- **통관 및 검수 확인 강화**
- * 라오스 국경세관은 관세포탈 방지를 위해 물류 검수를 강화하고 있으며, 무적 물품 압수 및 벌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력히 시행중임.
- 전기, 수도 등 **공공요금 인상**을 통한 국가부담 최소화
- * 전기는 '17년까지 매년 2%씩, 수도는 '18년까지 3~5%씩 인상 계획

□ 서비스 수요증가로 내수시장 점진적 확대

-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라오스 국민의 구매력 상승으로, 소비 욕구를 해소할 서비스시장 수요 증가
- * 의료, 쇼핑, 외식,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한 라오스인이 530만명(연인원)에 달하는 상황 ('11/비엔티안 타임즈)
- * 본사 추진 글로벌 서비스 RnD 사업 참여(서비스 시장 조사, 상담주선 등)

III

라오스 시장 진출전략

1

중장기 진출전략

< 시장특성과 시사점 >

시장특성	시사점
내륙국의 한계 및 기회	물류비용 과다로 임가공 투자진출에 걸림돌 - 인도차이나 중심으로서 ASEAN의 연결 허브로 발돋움
선점가능 시장	미성숙 시장이나 First Mover 선점효과 가능 - 대부분의 산업이 과점형태로 경쟁이 적음
원조 프로젝트시장	전세계적인 원조 감소에도 소폭 증가세 전망 - 연 약 4억 달러 시장 및 BOT 사업에 관심 필요
진출기반 조성 필요	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 -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



전략방향	세부추진과제
1. <u>상품 교역</u>	▶ 5대 수출유망상품 집중 마케팅 및 수출기업화 ▶ 인근(태국, 베트남)국 기진출 시장 활용
2. <u>투자 진출</u>	▶ 라오스型 투자 모델 개발 ▶ CSR 활동을 통한 진출기반 조성
3. <u>프로젝트 진출</u>	▶ 정부부처, 발주처 등과의 Networking 구축 ▶ 지사화, OPS 체결을 통한 가시적 수주성과 거양
4. <u>정상외교 성과활용</u>	▶ 라오스 투자유치 공무원 국내초청 연수 ▶ 국내 투자유치전문가 라오스 자문관 파견

① 상품교역

-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 1, 2위 품목인 승용차와 화물자동차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.9%에 달함('14년)
- 이들 대기업 제품을 제외한 아래 5개 품목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, 무역관 마케팅 사업에 우선 반영해 **수출기업화 추진**

<라오스 5대 수출유망상품>

품목	현황 및 진출방안
① 자동차부품	○ '13년 차량 및 부품시장 규모 10억 1,900만 달러, 전년대비 6.03% 상승 ○ 경제성장과 함께 차량구매가 증가중이며, 낮은 도로포장률 등 열악한 인프라로 소모 부품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
② 건설기자재	○ '13년 건설기자재 시장규모 30억 7,200만 달러, 전년대비 20.87% 상승 ○ 제 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의 공공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한 수요가 있을 전망
③ 의약품 및 의료장비	○ '13년 의료장비 및 의약품 시장 규모 7,700만 달러, 전년대비 10.87% 상승 ○ 보건의료 분야 MDGs 달성과 정부의 의료 인프라 개선의지에 따라 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망 (FY'13-'14 관련 분야 ODA 5,600만 달러 규모)
④ 화장품	○ '13년 화장품의 시장 규모 4,600만 달러, 전년 대비 28.7% 상승 ○ 저가의 인근국 제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화장품 브랜드와의 경쟁이 예상되며, 화이트닝, 노화관리, 색조 제품 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
⑤ 건강식품	○ '13년 전체 식료품 시장 규모 6억 4,200만 달러, 전년대비 8.75% 감소 ○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전체 식료품 시장 규모중 13.8%에서 14.4%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인삼 등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으로 라오스 유력바이어와 연계 유통망 구축 추진

- 물류 여건과 국제거래 경험 부족으로 태국, 베트남을 통한 경유 수입되는 한국제품을 찾아 라오스 바이어가 한국과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지원
- 인콰이어리 적극 발굴 및 업체 교신, 수입 절차 진행 등 지원
- 또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형성될 라오스, 태국, 베트남의 단일 시장이 가지는 강점을 활용, 기존 인근국에 진출한 제품을 라오스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한국제품 및 거래선 소개

② 투자진출 및 진출기반 조성

-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로 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고 남북으로 중국과 ASEAN을 연결하는 허브역할 수행 가능
 - 미흡한 물류 인프라로 임가공수출 투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현지 원부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제조업 투자는 AEC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라오스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유망 산업분야 발굴 및 진출지원
 - 포장산업, 재활용산업 등 제조업 성장을 위한 기초 산업 진출 지원
 - * 라오스 생산 식품의 경우 베트남, 태국 등으로 보내 위탁 포장하는 실정이며, 다오호앙 등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가 포장재를 수입함.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, 병, PET 등도 중국 및 태국으로 넘어가 재활처리 되어 라오스로 역수입되고 있음
-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라오스형 복합 투자 클러스터 모델 개발
 -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 및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 모델 개발로 라오스 투자진출 도모
 - * 캄보디아 농공복합산업단지와 같은 라오스 사업 환경에 적합한 모델 개발
- CSR 사업을 통한 親韓 분위기 조성 및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
 - 라오스 주성장동력인 전력, 수자원, 광물산업의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
 - 한국 상품 소개 및 진출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

<‘14~’15년 라오스 CSR 추진(예정) 사업>

CSR 사업명	사업 개요
라오스 수자원 학교 (Lao Water Resources School)	- K-water / 라오스 에너지광업부, '14.7월 실시 - 라오스는 메콩강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주 성장동력이나,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방안 부재 - 수자원 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한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
라오스 광해관리 학교 (Lao Mine Reclamation School)	- 한국광해관리공단 / 라오스 에너지광업부, '14.10월 실시 - 라오스는 광산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자원부국으로 향후 광산개발 활성화시 발생할 광해관리 기술전수 필요 - 기술전수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 및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
라오스 자동차 정비학교	- 좋은차닷컴 / 한라직업훈련원, '15년 상반기 실시 예정 - 낮은 기술력 및 체계적인 정비 메뉴얼 부재 - 차량 정비기술 전수로 국산 부품 및 윤활유 진출 도모
라오스 무료검안 및 안경보급 사업	- 대학당안경원 / 라오스 보건부, '15년 하반기 실시 예정 - 강한 자외선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경사용 인구 1% 내외 - 안경사용 캠페인, 제품 홍보 등을 통한 시장형성 및 투자진출

③ ODA 등 프로젝트 진출

○ 주요 발주처 및 Key Man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

- 현재 10개 기관 핵심네트워크를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, MDB 및 국제원조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
 - * 수도 비엔티안에 ADB, WB를 비롯 36개 국제기구가 상주
- 방한 전시회 및 상담회 등에 발주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우리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형성 및 수주활동에 기여
 - * GGHK 2014에 비엔티안시 부시장, 수도공사 사장 등 방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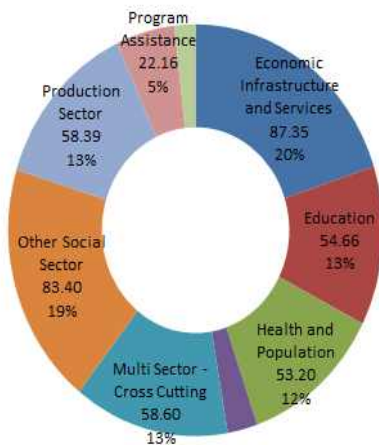
○ OPS 및 지사화를 통한 실질적 수주활동 지원

- 단순 프로젝트 정보수집이 아닌 실질적인 수주활동 및 사업수행 지원
- 사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라오스 수주 모델 수립
 - * OPS: 삼안엔지니어링 / 지사화: ITI(무역투자연구원) 지원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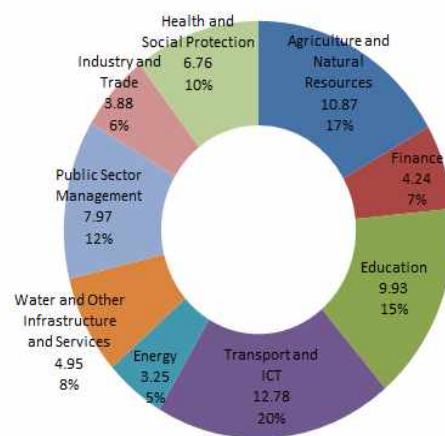
○ 원조동향 분석을 통한 수주가능 사업 발굴

- 라오스로 공여되는 ODA는 저개발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, 교육, 보건·의료분야에 집중
- 라오스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과 원조기구별 중장기 국가전략을 분석해 우리기업 진출 가능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 제안

<2009~2013 5년간 DAC 및 ADB 분야별 對라오스 ODA 비율(단위: USD백만)>



개발원조위원회(DAC)



아시아 개발은행(ADB)

자료 : OECD/DAC

④ 정상외교 성과활용

* 라오스 께말리 사야손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 2013.11.21~23일간 이뤄졌으며, 방한기간 중 KOTRA를 방문, ‘한-라 비즈니스 포럼’ 참석(특별연설)

□ 라오스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

○ 사업추진 배경

- 라오스는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이거나 시스템 및 인력의 전문성 취약 → 투자유치 노하우 전수를 통한 KSP 활동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조성

○ 사업내용

- Invest Korea의 조직, 운영 노하우를 경험할 국내초청연수
- KOTRA 퇴직 전문가를 라오스 기획투자부에 자문관으로 파견

○ 추진경과

- 라오스 대통령 방한(13.11월) 이후, 한-라 재무장관회의(‘14.1월) 및 한-라 경제공동위(‘14.3월) 공식의제에 반영시켰으며, KOICA 예산사업으로 확정(‘14.2월), 라오스 기획투자부(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)에 전문가(김영철) 파견(‘14.8월) 활동 중

<라오스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 주요내용>

프로그램	주요내용
라오스 투자유치 인력 국내초청 연수과정	- 대상 : 라오스 기획투자부 등 투자유치담당 중앙·지방정부 공무원 20명 - 시기 : '14.7월 (2주간 실시) - 내용 : 한국 투자유치 시스템 소개, FDI 관련 국내기관·현장 방문, 양국 FDI 관계자 간 협력방안 협의
국내 투자유치 전문가 라오스 자문관 파견	- 파견 : 국내 FDI 전문가(10년이상 경력자) 1명 - 기간 : 1년 ('14.8월 파견) - 대상 : 라오스 기획투자부(MPI) - 활동 : 투자유치 정책·제도 진단,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자문, 투자유치 전문인력 교육·양성

【별첨】

가. 관할지 경제동향

(1)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

□ 2015~16년 라오스 경기회복 전망(EIU)

- 국가재정난으로 주춤했던 라오스 경제는 수력발전 프로젝트 및 라오스-중국 고속 철도 사업과 태국 경기의 회복에 따라 2016년 8%대로 다시 증가될 전망

□ 아세안 경제공동체(AEC) 출범과 아세안 역내국 투자증대 예상

- 라오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, 대라오스 직접 투자 55개국 중 중국, 베트남, 태국이 라오스 투자 1, 2, 3위를 차지
- 2013년 WTO 가입에 따라 아세안(ASEAN)에 관심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광산 및 수력 자원개발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의 두드러진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

<라오스 경제동향>

지표		단위	2010	2011	2012	2013	2014
대 내 경제	경제성장률	%	8.1	8.0	7.9	8.0	*7.4
	1인당 GDP	US\$	1,069	1,236	1,414	*1,593	*1,697
	소비자 물가상승률	%	6.0	7.6	4.3	6.4	*5.5
	종합주가지수	Pt	N/A	899.5	1,207.2	1,349.4	1414.2
대 외 경제	수출실적	MUS\$	2,072	3,020	3,209	3,097	1,596
	수입실적	MUS\$	3,263	4,243	5,806	6,196	4,339
	무역수지	MUS\$	-1,191	-1,222	-2,598	-3,098	-2,743
	환율	/US\$	8,056.57	8,017.90	7,996.58	8,013.35	8,073.14

자료: IMF, ITC, BOL

주: *는 예측치

(2) 산업 동향 및 주요 산업정책

□ 전력 산업

- 수력발전은 라오스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,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1만200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

- 2015년 2월 기준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는 21개, 시공 및 준비 단계에는 69개이며, 생산용량은 3,200MW
- 최근 10년 간 수력발전에 약 4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으며,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32%에 해당
-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라오스 정부는 수력발전 관련 BOT사업과 PPP 등에 더 많은 외투를 유치할 계획

□ 광업

- GDP 비중 1위 품목,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증대가 기대
 - 국제 광물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구리, 금 외에 다양한 광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전망
- 전체 광물자원의 30% 정도만이 확인된 상태
 - 현재 127개 개발사(현지: 42, FDI: 85)에 213개 프로젝트와 정부 감사가 진행 중임
 - 신규 허가가 중단된 모라토리움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광물탐사 및 개발이 시작될 전망

□ 관광 산업

- '13년 377만 명 방문, 연평균 17% 성장 지속 예상
 - 2011년~2012년간 라오스는 관광으로 4억 달러의 수익 거양
 - 관광 산업 발전은 기타 서비스업과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라오스 GDP 증가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

* '13년 한국 관광객은 8만 1,799명이었으며, '14년 10만 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예상

(3) 경쟁국 / 글로벌기업 진출전략 및 현황

- (일본) Nikon, Toyota 등 라오스 경제특구에 생산기지 건설 착공
 - 태국 홍수와 정세불안 등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보조 생산기지로 라오스에 진출
 - 일본 투자기업 수가 100개를 초과했으며, 제조업 및 농산물 등의 생산에 주로 투자
- * 일본 JETRO '14년 7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
- (중국) 정부원조와 민간 자본투입으로 라오스 진출
 - SEA Game 경기장, ASEM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사업에 중국 정부의 원조

자금 투입이 이어지며, 민간의 광산, 수력발전, 신도시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측면 지원

- 라오스 수출의 60%를 차지하는 란쌍 미네랄(LXML)을 인수한 후 6억 5,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으며, 라오스 최초 화력발전소인 홍사(Hongsa) 화력발전소 건설중(1,878MW, 40억 달러 투자)

○ (아세안) 태국, 베트남의 라오스 경제 장악력 강화

- 라오스 수입과 수출의 1위와 3위를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, 對라오스 투자는 베트남과 태국이 2위 및 3위를 기록
- 관세장벽이 사라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(AEC) 출범 후 기존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권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경쟁 시작

♣ 라오스를 둘러싼 3강 : 라오스는 국방을 외교로 한다?

- 5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며, 특히 북부는 중국, 동부는 베트남, 메콩강 유역의 서부는 태국에 맞붙어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근거리 외교를 통해 실익 창출
- (베트남) 라오스 건국(1975년)을 지원한 큰 형님의 나라로 정치적 영향력 다대
- (태국) 언어와 문화가 매우 유사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하나 정서적으로는 침략을 당한 아픈 역사로 인해 가깝지만 먼 관계 (한일 관계와 유사)
- (중국) 중국의 막대한 원조가 필요하나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 형성

나. 우리나라 진출현황

(1) 수출입 동향

□ 교역규모 2억 달러로, 적지만 꾸준한 교역량 증가

- 다소 주춤한 성장세에도 對라오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對라오스 수입은 다소 부진한 상태지만 서서히 증가세

<최근 5년간 對라오스 수출입 규모>

(단위: 천달러)

연도	한국-라오스 수출		라오스-한국 수입		교역수지
	금 액	증감률(%)	금 액	증감률(%)	
2010	112,252	101.3	19,990	14	92,262
2011	154,462	37.6	4,325	-78.4	150,137
2012	165,040	6.8	11,346	162.3	153,694
2013	187,050	13.3	12,482	10.0	174,568
2014	156,047	-3.6	18,036	4.9	138,011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(수출) 차량 및 관련 부품 등 82.8% 차지

- 차량 및 부품이 전체 수출의 82.8%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, 철 구조물 및 원동기 수출이 증가세

<對라오스 10대 수출품목>

(단위: 천 달러, %)

순위	품목	2012		2013		2014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승용차	73,566	-11.6	90,933	23.6	68,000	-25.2
2	화물자동차	55,885	50.6	59,878	7.1	42,667	-28.7
3	자동차부품	10,116	8.5	11,736	16.0	13,038	11.1
4	건설중장비	3,531	71.5	4,109	16.4	5,741	39.7
5	철구조물	516	22.2	1,006	95.2	2,754	173.6
6	원동기	169	-34.5	1,176	594.4	2,507	113.2
7	특장차	5,464	-3.4	1,931	-64.7	1,930	0.0
8	열연강판	432	-51.3	821	90.2	1,282	56.1
9	펌프	41	29.1	28	-31.2	1,208	4,187.2
10	타이어	1,627	66.8	649	-60.1	1,146	76.6
총 수출액		165,040	6.8	187,050	13.3	156,047	-16.6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(수입) 점진적 증가세

- 한국의 對라오스 수입은 수입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증가율이 큰 의미는 없으나 목재류, 연초류 등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세

<對라오스 10대 수입품목>

(단위: 천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2		2013		2014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칼륨비료	0	0	2,439	0	6,250	156.2
2	기타목재류	3,597	149.8	4,374	21.6	5,958	36.2
3	연괴및스크랩	-	-	0	0	2,635	0
4	기타정밀화학원료	8	0	0	-98.9	1,486	165만
5	편직제의류	392	88.6	720	84.0	495	-31.3
6	연초류	17	0	92	450.4	247	168.7
7	직물제의류	139	-20.8	159	14.2	183	15.4
8	기타가죽	11	0	0	-100	117	0
9	천연고무	-	-	0	0	111	0
10	버섯류	0	0	21	0	107	420.3
총 수입액		11,346	162.3	12,482	10.0	18,036	44.5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(2) 투자진출 현황

- **(투자동향)** 2011년 한국-라오스 직항노선 개설 후 라오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
 - 최근 5년간 투자액이 전체 누계의 40%를 초과
- **(투자액)** 1992년 이후 對라오스 투자 신고 누적액은 9억 3,500만 달러이며, 실투자액은 2억 5,700만 달러
 - 2014년 對라오스 투자는 신고액과 실투자액이 거의 일치하는 1,600만 달러를 기록

<한국의 對라오스 연도별 투자현황>

(단위: 건, 사, 천달러)

연도	대라오스 직접투자			
	신고건수	신규법인	신고금액	투자금액
2010	24	7	53,425	15,450
2011	20	5	32,190	13,937
2012	24	10	43,015	26,652
2013	46	17	231,616	36,664
2014	27	10	16,616	16,542
전체누계('92-'14)	250	104	935,592	257,117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

- **(업종별)** 법인수 기준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투자가 전체의 30%를 차지하나, 금액 기준으로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의 50%를 차지

<한국의 對라오스 업종별 투자현황>

(단위: 건, 사, 천달러)

업종대분류	신고건수	신규법인수	신고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
농업, 임업 및 어업	31	12	18,543	1.98%	7,933	3.09%
광업	29	8	46,389	4.96%	11,253	4.38%
제조업	45	23	26,391	2.82%	10,741	4.18%
건설업	36	15	415,698	44.43%	67,127	26.11%
도매 및 소매업	23	12	60,697	6.49%	51,664	20.09%
운수업	2	1	230	0.02%	71	0.03%
숙박 및 음식점업	8	7	36,430	3.89%	3,838	1.49%
금융 및 보험업	22	4	85,109	9.10%	44,465	17.29%
부동산업 및 임대업	11	5	31,516	3.37%	7,935	3.09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5	2	6,650	0.71%	1,677	0.65%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	14	8	14,467	1.55%	10,273	4.00%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	3	2	550	0.10%	222	0.09%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10	1	185,879	19.87%	39,070	15.19%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	7	1	83	0.01%	83	0.03%
협회 및 단체, 및 기타 개인	4	3	6,960	0.74%	765	0.30%
기타	1	1	10	0.00%	10	0.00%
합계	251	105	935,602	100%	257,127	100%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

/ 끝 /

○ 자료 문의

- 비엔티안무역관 : 김찬호 / chkim@kotra.or.kr
- KOTRA 본사 : 안유석 차장 / 02-3460-7312